

대한양계협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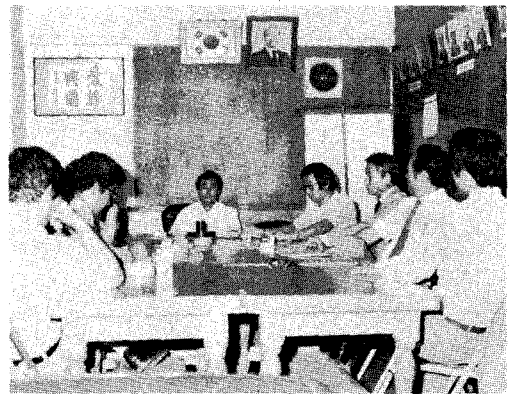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금조성 추진

— 추진위원회 구성, 전국양계인 서명요망 —

본회는 양계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위해 양계산업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양계인을 대상으로 취지문을 송부, 동의 서명을 받고있다.

이는 지난 8월 5일 업계 원로간담회에서 양계인 스스로의 안정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의해 지난 8월중 본회가 실시한 하계양계강습회를 중심으로 경기, 대구, 부산, 광주, 전주등 양계농가의 소망사항을 청취해 8월26일 제 5차 본회 이사회에서 양계안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 바 기금을 조성키로 협의하는 한편 이 사안을 전문기관에 위촉하고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다.

본회는 제 5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류종래(전 대한 양계협회 회장, 유성농장대표)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계산업 안정기금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양계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위해 개최된 양계안정기금 조성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광경

양계산업 안정기금조성 추진 위원회

- 위원장 : 류종래(전 본회회장, 유성농장)
 부위원장 : 박준영(한협종계장)
 이보연(삼일농장)
 계우회 연합회 회장단 중 1명
 위 원 : 이계조(천효부회장)
 차두홍(한일농장)

이규상(유일농원)
신흥종(고창양계)
강세춘(광일부화장)
박승만(한국카길(주))
차상진(봉명부화장)
배선채(중원농장)
배선목(삼화농원)〈무순〉

또 본회는 9월21일 오봉국박사(서울농대 교수)를 대표로 하는 양계산업안정기조성 추진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계산업 안정기금 조성 추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대표 : 오봉국(서울농대)
간사 :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위원 : 오세정(전국대, 세계카금학 회 한국지부)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김중곤(현대양계사)
축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회는 아래와 같은 취지문을 전국 양계인을 대상으로 지부, 분회, 단지, 육계운영위원, 계우회 연합회에 송부 전 양계인의 일사불란한 동의 서명으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취지문

우리 양계농가는 양계산업을 천적으로삼아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그 일부를 담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양계산업을 이끌어 올리는데는 그동안 정부, 학계, 및 연구분야의 꾸준한 지도가 큰 힘이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님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그 번식력이 강하여 생산물의 증감의 속도가 빨라 생산물의 조절이 시장유통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마음 조이면서 스스로의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산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연마, 병아리의 생산조절, 종계도입조절, 양계등록제 및 쿼터제실시, 배합사료의 생산조절 제산물의 소비 촉진 활동등 여러가지 방안을 스스로 결행하고자 일부는 시행도 해보았으나 생산기술 향상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는 기대할 만큼 얻지못한채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산업에 까지 파급되어 사회의 불신풍조마저 조성되어 가고있어 우리들의 천적인 양계산업을 국민에게 가장 값싸고 값진 영양식품인 제란과 계육의 공급자라는 자부과 인식을 주기는 커녕 사회의 문제거리로 부각되어 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의 축산물 수급전망이 어려운 이때에 가장 사료효율이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값진 영양공급원이 되어있는 제산물이 선진국에서는 소비가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코저하며 결코 국민을 저버리지 않는 산업의 역군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80년대의 정의로운 사회개발에 동참하여 그동안 우리분야의 부조리를 말끔히 청산하고 화합과 단결로서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그 증표로 여기에 서명날인 합니다.

81년도 제3차 검정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검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15회 산란계 검정 최종 성적 검토.
- 나. 16회 산란계 중간 성적 검토.
- 다. 15회 산란계 검정완료 종합 성적보고.

감별사 경진대회 및

자격시험 실시예정

—오는 10월31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81년도 감별사 경진대회 및 제 2차 감별사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31일(土) 대한양계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지난 5월에 열렸던 감별사 자격 시험 광경

감별분과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응시자 접수를 받기 시작해 10월 5일(월) 까지 접수를 마감할 예정인바 많은 감별사들의 응시를 바라고 있다.

한편 감별분과위원회는 미국과 서독으로 해외감별사를 파견할 예정인데 지난 8월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년간 감별사 취업을 마치고 귀국한 바 있는 최재택씨가 9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지난 10월 1일에는 정청, 박무중, 서경희 감별사가 미국 암척회사로 취업차 출국하였고 10월 17일에는 본회 감별분과 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일씨가 서독 힐케회사로 출국할 예정이다.

가축통계조사 적극협조 요망

—농수산부, 10월 1일 부터 실시—

농수산부는 '81년도 3/4분기말 돼지, 닭 가축통계조사를 오는 10월 1일 부터 10일간 각 양축농가를 방문 실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부산하 농수산통계사무소 및 시군 통계출장소에서 년 2~4 회 실시하고있는 가축통계조사는 축산물 수급이나 사료수급계획 수립 등에 이용되며 이 조사는 통계자료의 유용성과 신고의무성, 조사치의 비밀보장 및 조사목적 외 사용금지가 보장됨을 인식하여 양축농가의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전회원 및 양축농가에서는 정확한 통계만이 정확한 관측이나 시책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적극 협조해 각 시군 통계출장소의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정확한 통계자료로 축산산업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감별분과 회원 체육대회

— 9월 19일 잠실에서 —

본회 감별분과 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감별사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결속을 강화하며 업계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의 대회는 잠실축구장에서 벌어졌는데 높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 이리저리 힘차게 차고 달리는 선수들은 가끔 코믹한 장면을 연출(?) 하여 폭소를 자아내게도 하며 하루를 즐겼다.

총주분회 주소 변경

본회 총주분회(회장 이종득) 사무실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소: 충주시 호암동 239(2통 3번)

본회내방

호주 해리슨양계기구(주) 대표 Harrison씨가 국내에서 부화기, Feed Bin, 자동급이기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평농축기(대표 김영철)와 대리점 계약차 내한, 지난 9월 15일 본회를 방문하였다.

동사는 호주 제일의 부화기, 급수기 체인급이기, 케이지 생산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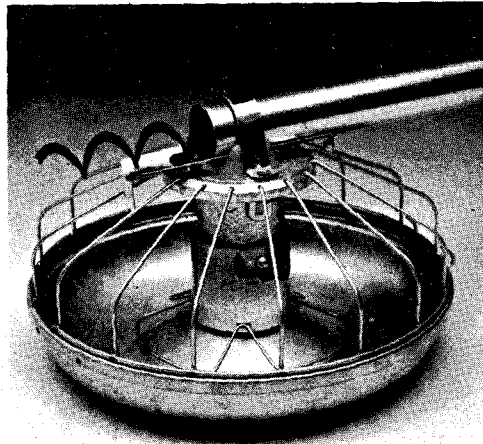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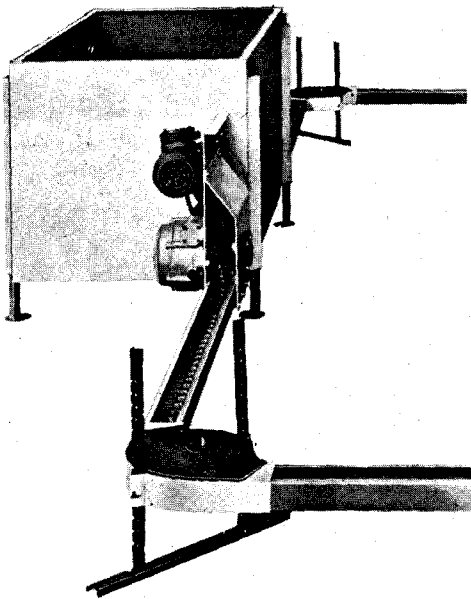
광주분회, 사무실 신설

본회 광주분회(회장 백금현)는 지난 9월 5일 사무실을 신설하고 오후 2시부터 기념식을 가졌다.

주소: 광주읍 역리 23-30번지(라이온스 사무실 옆) 전화: 3926

기사정정

본지 9월호에 게재된 본회 부산지부의 전화번호는 (57)2811이 맞는 것이기에 정정함



오가급이기는 육계의 평사사육에,
체인급이기는 종계의 제한급이와
케이지 산란계의 자동급이에 적합합니다



Cyclone 과학축산시스템
INTERNATIONAL, INC.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전화: 792-7212 · 7887

수입 판매
엔지니어링